

##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 음식료 Weekly

#### 1. 전주 동향

##### 음식료

4월 첫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1.7%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36.1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1.7% WoW), 소맥(+2.2% WoW), 대두(+1.7% WoW), 원당(+1.8% WoW) 기록. 옥수수는 주초반 USDA의 1분기 미국 옥수수 재고량 발표치가 시장 기대치 대비 75백만톤 상회하며 전주 대비 가격 하락을 이끌었으나, 주 후반 숯 커버링으로 가격 상승. USDA의 2019년 미국산 소맥 파종 면적 4% 축소 발표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며 전주 대비 가격 강세. 해당 파종 면적은 100년 간의 기록 중 최저치. 대두는 중국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소식으로 수출에 대한 시장 기대감 상승, 전주 대비 가격 강세. 원당은 필리핀의 원당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 전주 대비 1.8% 상승

중국 라이스 제조업체 가격 인상 노력 지속하나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원재료 가격 부담이 완화됐으나 시장 가격이 비용 절감분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으로 제조업체 생산 마진 압박 중. 국내 수요가 매우 부진한 상태로 생산 실적은 수출에 달려있는 상황. 메티오닌은 Evonik과 Ziguang이 가격 인상을 단행. Ziguang은 최근 생산 라인 증설에 투자. 공급 과잉 심화 예상. 쓰레오닌은 시장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며 현재는 바닥 시그널 발생. 국내 제조업체의 손실 장기화되며 일부 업체 생산 조정 계획. 주요 공급처는 Meihua, Yipin, Yifeng에 집중 예상. 향후 Xiangyu도 공장 가동에 돌입 예정. 최근 시장 가격 상승은 미래의 수요가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 가격 상승 이후 제조업체의 공급 과잉 심화 예상. 트립토판 최근 거래 가격은 상승 기조이나 아직 시장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향후 생산 캐파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 약세 기조는 유지 전망

국내 이벤트는 1. (하이트진로음료) 19.1~19.3월까지 '진로믹서 토닉워터'의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18년 판매량은 17년 대비 38% 증가 2. (오리온) 스낵 신제품 '섬섬옥수수' 출시. 편의점 기준 가격 1,000원 책정 3.(국내리먼) 농심, 오투기 등 한국리먼 회사 대상 리먼 가격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던 미국 유통업체 '더플라자컴퍼니' 항소 포기. 18.12월 승소 이후 소송 마무리 4. (롯데푸드) 20년까지 경북 김천공장에 930억원 투자하며 HMR 제품 생산 라인 증축. 증축 완료시 만두, 튀김 등 신제품 출시 계획 5. (오리온) 18.10월 출시한 '감자엔 소스' 제품 데리야게맛 출시하며 플래이버 확대

#### 2. 금주 전망

**음식료 섹터 의견 Overweight 유지, 19년 음식료 영업이익 전년비 13.3 성장하며 KOSPI 영업이익 전년비 18.1 감소 대비 우수한 상대 성과 예상. 음식료 4Q18 실적발표 진행중**

음식료 섹터 의견 Overweight 유지, 19년 음식료 영업이익 전년비 13.3 성장하며 KOSPI 영업이익 전년비 18.1 감소 대비 우수한 상대 성과 예상. 음식료 4Q18 실적발표 진행중. 종목별 기대치 상회해 혼조 하긴 했지만 섹터 PBR 1배, PER 13 배로 11년 이후 저평가 국면 유지. 상반기 종목별 분산 흐름 하반기 대형주 실적 확인 및 20년 추가 성장 기대감 반영 예상. CJ제일제당 상반기 쉬완스 리스크 해소 하반기 실적 부각, KTNG 대형주 줄 대응 제품 출시 리스크 해소, 중소형주는 해외 수출 관련주로 부각 매일유업, 삼양식품, 자체 수익성 개선 예상되는 CJ프레시웨이 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전년도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부분 컨센서스 부담 및 상회하는 실적 발표, 중소형 종목별 코멘트: 대상은 18년 비용 통제 흐름을 보여준 과거 실적소스를 기록했던 우려감이 해소. 해외 부문은 구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짐. 대상베스트코의 경우 적자폭을 전년대비 70억원 축소 시키며 19년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동원F&B는 여가 하락 효과 및 매출 고성장 이어지며 호실적 달성, 19년 목표도 매출액 10% 성장, 영업이익 15%~20% 성장으로 설정. HMR, 참치, 죽, 유가공, 유통부문 등 기존 매출 성장 사업부의 성장성이 이어질 전망. 하이트진로는 1Q19까지 공장 설비 변경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이 부담 요인. 맥주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비용 지출 규모가 미정인 상황으로 영업이익의 증가 감소 방향성이 불확실. 현대그린푸드는 최저 임금 인상 110억원 반영이 19년 추가적인 부담 요인. 선진은 저돈가 상환지속과 농장확보가 더디게 진행되며 양돈생산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

####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관심종목

##### 하이트진로 (000080)

1Q19 일회성 요인들로 실적 부진 예상되지만 단기 실적 보다는 구조적 변화 여부에 주목할 시기로 판단. 1) 신제품 효과, 2) 가격인상, 3) 주세개편 등. 신제품 테라 초기 성과는 6~7월 까지의 판매 집계를 통해 확인 가능할 전망. 출시 첫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점유율은 전국 기준 5% 달성 여부로 예상. OB맥주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으로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 확대, 주세개편은 인지도 낮은 저가 수입맥주의 확산에 제동 요인으로 실적 부진을 상쇄하는 긍정 적인 요인들 확보

##### 선진 (136490)

19년 실적성장은 사료부문 수량확대 + 가격인상 효과, 베트남 법인 연결 편입이 주도. 사료 매출액은 18~20% 성장 예상. 18년 4분기 가격 3% 인상효과 3Q19까지 반영. 사료 판매량은 17년 63만톤, 18년 68만톤, 19년 80만톤 예상. 베트남 법인은 연기준 매출액 1500억원, 영업이익 210억원(18년 실적 대비 54.4% 비중) 1~2분기 이후 연결 편입 예상. 사료부문은 매출 비중은 양돈 70, 축우 30. 사료매출 구성은 1/3 계열화, 1/3 외부농장 양돈, 1/3 축우 사료. 사료 마진은 11~13% 수준. 사료 판매량 17년 63만톤, 18년 68만톤, 19년 80만톤 목표, 식육부문 3~4% 적자, 식육은 매입 가격 대비 낮은 평가 구조. 선진포크 브랜드 외에 OEM 판매 제품들의 저가 판매 지속. 양돈 부문은 18년 계열화 45만두(자체 농장 17만두)+외부농장 35만두 총 80만두에 사료 판매. 19년 계열화는 60~70만두로 증가 외부 사료는 35~40만두 예상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하여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4월 8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8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8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